

# 번역출판의 나쁜 선례

김태길

철학문화연구소 이사장

우리나라 출판문화에 있어서 번역서의 간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의 국제적 교류가 날로 더해 가는 오늘의 상황은 번역서 출판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출판계는 번역서 간행의 좋은 전통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였다. 해방 직후 초창기에 번역사업의 첫 단추를 끼운 사람들이 일을 잘못했던 까닭에, 그 뒤를 이어서 단추를 끼운 사람들도 선배들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되었다.

1950년대에 문교부에서 고전번역의 고료를 지원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중진'으로 평가되었던 저명교수들이 그 지원의 혜택을 받았거니와, 그 '중진교수'의 대부분은 그들이 맡은 번역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많은 경우에 일본 번역서를 중역하는 안이한 길을 택하였고, 더러는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름만을 팔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불성실한 출발은 우리나라 번역서 출판의 몹시 나쁜 선례가 되었다. 이 선례는 번역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위험한 생각을 유발했으며, 일본말만 좀 알면 동서고금의 아무 책이나 번역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낳게 하였다. 더러는 같은 번역원고를 두 출판사에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고전의 번역까지도 학자 또는 문학가의 업적으로서 평가하지 않는 잘못된 관념을 고정시켰다.

근래에는 실력있는 번역가도 나타났고 양심적인 번역서도 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나쁜 습성을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보기 어렵다. 제대로 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말 문장에 능숙해야 하고 또 남의 나라 말에도 능통해야 하는데, 두 가지가 모두 서투르는데도 배짱 좋게 번역을 맡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만 빌려주고 이름값을 챙기는 저명인사도 아직 남아 있다고 들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붙은 원고를 짤 값으로 사기 위해서, 출판사 측에서도 공범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까닭에 이러한 부조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원전을 좋은 번역을 통하여 소개하는 출판행위는 매우 귀중한 문화활동이며, 단순한 돈벌이의 거리로 삼을 성질의 하찮은 일이 아니다. 번역출판을 소홀하게 다룬 과거의 나쁜 습성을 완전히 불식하고, 이 일이 올바른 궤도에 오르도록 문필가와 출판업계가 다같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우선 번역작업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남의 말로 된 글을 번역하기는 정말로 직접 쓰기보다도 더 어려운 일면을 가졌다. 그것은 해박한 학식과 탁월한 문장력을 아울러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 어려운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실력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어려운 작업에 대하여 물심 양면의 정당한 대접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번역에 종사하는 문필가의 마음가짐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출판사의 기본자세이다. 유행심리에 편승하여 약삭빠르게 돈을 벌려는 자세로는 올바른 번역의 길을 닦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 생명이 긴 우량도서를 간행함으로써 출판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진 사람들만이 번역풍토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표지인물 2 풍부한 사료 집성한 대중적 연극사학

「우리시대 연극운동사」 낸 유민영 교수

뉴스 3 제2회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

초점 4 대학구내서점 어떻게 운영되나

직영화 추세 속 경영상 어려움 많아

서평 6 도수희 「百濟語研究Ⅱ」—박병채

여성한국사연구회 「한국가족론」—강남식

7 하자노프 「遊牧社會의 構造」—주채혁

클리프 「맑스엔겔스문학예술론」—김명환

8 채트먼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이재선

박권상 「대낮에 등불을 밝히고」—최일남

9 윤후명 「벌까지 우리가」—박철화

김영현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강형철

10 신경림 「길」—송희복

유영박 「韓國近代社會經濟史研究」—유원동

출판저제 11 동구권 번역을 보는 두 시각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의 인문지리지

리포트 12 영국의 '북토큰제도' 운영실태—이두영

영업이익 거의 없어 공익사업으로 추진

연재기획 14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⑬

해방전후 명문당과 이문당을 중심으로

이 책 그사람 16 법의학에세이 「지상아」 낸 문국진교수

랑팔자서전 번역한 이장직씨

17 첫시집 「불란서영화처럼」 낸 전연옥씨

「무당시대의 문화무당」 낸 박정진씨

화제의 인물 18 같은날 각각 시집 낸 최승호·계선 형제시인

서점순례 19 부산지역 책문화의 터줏대감 '영광도서'

참관기 20 출판인과 어린이가 어우러진 축제

제27회 볼로냐아동도서전시회

해외화제 22 英美출판계, '좋은 시절'은 가다—이봉호

거대복합기업 참여로 판도변화

세계의 출판 24 유럽인들의 親 나치행적 날날이 규명·외

독자서평 26 김미정/장세진/김규리/소성락

28 새로운 詩集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백자 안내/논문집/사전/사료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 (박현숙)/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